

보도일시	2021. 12. 2.(목) 석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2021. 12. 2.(목) 오전 06:00 이후		총 9쪽 (붙임 6쪽 포함)
배포일시	2021. 12. 1.(수)		
담당부서	국제협력담당관실	최혜민 과장(02-2100-6101), 주성재 주무관(02-2100-6114)	
	가족문화과	양철수 과장(02-2100-6361), 박은수 주무관(02-2100-6368)	

한-스웨덴, 성평등 분야 협력 지속 추진

- 여가부, 스웨덴 고용부와 성평등 정책 교류 양해각서(MOU) 체결 기간 2년 연장
 - 양국 공동개최 '대한민국의 아빠 육아생활 사진 공모전' 시상식 열려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일(목) 오후 2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웨덴 고용부(Ministry of Employment)와 성평등 정책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양국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빠 육아생활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주한스웨덴대사관과 공동개최한다.
- 양국은 지난 2019년 스웨덴 스테판 뢰벤 총리 방한을 계기로 양해각서를 체결(유효기간 : '19.12.18.~'21.12.17.)하였으며, 양국 간 협력 지속을 위해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 한국 측은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스웨덴 측은 방한 중인 로베르트 리드베리(Robert Rydberg) 외교부 차관이 고용부를 대신해 양해각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 한-스웨덴 양해각서(MOU) 주요 내용 >

- (협약 기관) 여성가족부(한국), 고용부(스웨덴)
- (갱신 일자) '21. 12. 2.
- (협력 내용) ▲성평등 관련 정책 성과 공유, ▲성평등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의 인적 교류, ▲강연·교육 등 공동 프로그램 운영과 성평등 글로벌 포럼 및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등 국제회의에서의 협력 등
- (발효·기간) 서명과 동시 효력 발생,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 양국은 그동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성평등 분야 공동사업 발굴, 국제 사회 공조 강화 등 상호협력을 추진해 왔다.
- 특히, 지난해 양국이 처음으로 공동개최한 ‘아빠 육아생활 사진 공모전’은 성평등한 육아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 모으는 계기가 됐다.

< 양해각서(MOU) 체결 후속조치 이행 실적 >

- ▶ 가족친화경영 실천토론회(포럼) 개최(‘20.10월)
- ▶ 대한민국-스웨덴 아빠육아생활 희·노·애·락 사진전(온라인) 개최(‘20.11월)
- ▶ 가족 친화 문화 확산을 주제로 여가부 장관-주한스웨덴대사 좌담회 개최(‘20.11월)
- ▶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부대 행사 공동 개최(‘21.3월)

- 올해 「대한민국의 아빠육아 생활 사진 공모전」에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1,079점(727명)의 사진이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으뜸상 1점과 버금상 2점, 아차상 10점을 선정하였다.
- 으뜸상(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아버지도 한 때 머리 좀 만졌단다’는 세 남매를 챙기며 딸의 머리를 묶어주는 아빠의 모습을 통해 아빠들이 더 이상 육아의 보조자가 아닌 적극적 참여자로 바뀌고 있는 맞돌봄 문화를 잘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다니엘 볼벤 주한스웨덴대사는 “육아에 적극적인 대한민국 아빠의 사진을 통해, 성평등한 부모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의 더욱 높아 지길 희망한다”라며 “참여작을 보면서 두 차례 육아휴직을 통해 자녀와 함께했던 특별한 시간을 떠올렸다.”라고 말했다.
- 여성가족부 김경선 차관은 “이번 양해각서 기간 연장과 아빠육아 생활 사진 공모전 시상식이 성평등 분야에서 한국과 스웨덴 간 교류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우리의 성평등 정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행사 개요

2. ‘대한민국의 아빠 육아생활 사진 공모전’ 수상작

3. ‘대한민국의 아빠 육아생활 사진 공모전’ 개요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일 시 : '21. 12. 2.(목), 14:40~15:4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본관) 17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한 국 : 여성가족부차관, 가족정책관, 가족문화과장, 국제협력담당관 등
 - 스웨덴 : 외교부차관, 주한스웨덴대사 등
- 내 용
 - (양해각서 체결식) 서명자(양국 차관)가 영문본 1부씩 서명하여 교환
 - (사진전 시상식) 수상자 발표 및 시상(양국 차관)
 - * 진행 : 한-영 순차진행
- 세부 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40~14:46	· 개회 / 참석자 소개(한스웨덴 차관 인사)	사회자
14:46~14:55	· 양해각서 및 사진전 주요내용 소개	사회자
14:55~15:05	· 개회사, 축사(각 5분)	양국 차관
15:05~15:15	· 양해각서 서명(영문 2부) 및 기념사진 촬영	양국 차관
15:15~15:35	· 사진전 발표 및 시상	양국 차관
15:35~15:40	· 기념사진 촬영 및 폐회	

□ 수상작 현황

연번	성명	제목	비고
1	김대한	아버지도 한 때 머리 좀 만졌단다	으뜸상
2	강성욱	아이와 교감시간	버금상
3	안상태	업사이클 신문지와 아빠의 가위질	버금상
4	이영진	아빠는 미용사	아차상
5	나길운	아빠의 음악시간	아차상
6	심현욱	네명의 남자와 한명의 여자의 평범한 저녁식사	아차상
7	임명식	아빠미용실	아차상
8	김유근	배꼽에 집중	아차상
9	김경일	항상 널 비취줄게!	아차상
10	오종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침	아차상
11	서영곤	엄마는 열일중, 우리는 청소중♥	아차상
12	방기필	아빠와 함께하는 즐거운 목욕시간	아차상
13	박정환	아빠의 독서 열정	아차상

최우수상(으뜸상)	스토리(요약)
 <p>(김대한) 아버지도 한 때 머리 좀 만졌단다</p>	<p>머리 묶는 것에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어디 있겠습니까!</p> <p>'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전. 몇 부리며 머리 묶고 꾸미던 시절을 회상하며 딸아이의 머리를 예쁘게 단장 해줄 때의 행복은 단연 으뜸입니다!</p> <p>우리 세 남매가 엄마의 향기보다 아버지의 향기에 더 익숙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릴 것입니다.</p>

우수상(버금상) 1	우수상(버금상) 2
	
<p align="center">(강성욱) 아이와 교감시간</p>	<p align="center">(안상태) 업사이클 신문지와 아빠의 가위질</p>
<p>밤에도 배꼽시계 울리는 아이를 위해 분유와 트림을 시도하면 교감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는 있지만 교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추억은 오래 남습니다.</p> <p>아버지께 받았던 좋은 추억을 신생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에게 그대로 물려주려고 합니다. 좋은 아빠는 항상 아이 옆에서 길라잡이 역할을 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랜턴처럼 아이의 길을 밝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p>	<p>우리 가족은 장난감 보다는 재활용품을, 키즈카페 보다는 아빠와 함께 노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신문지로 병정놀이를 하다가 이발소 놀이로 바뀌고... 그러다 이발소에서 샤워까지 성공한 보람찬 하루였습니다.</p> <p>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가정에서 아빠의 자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이 눈치 보기가 아닌 떳떳한 휴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오늘도 아빠는 미래에 물려줄 가족친화 환경을 살리며 아이와 즐겁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생각해 봅니다. (요약)</p>
장려상(아차상) 1	장려상(아차상) 2
	
<p align="center">(이영진) 아빠는 미용사</p>	<p align="center">(나길운) 아빠의 음악시간</p>
<p>딸아이의 앞머리가 자라서 눈을 가리네요. 군대에서 익힌 아빠의 미용 실력으로 딸아이의 앞머리를 예쁘게 잘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p> <p>육아를 함에 있어서 엄마들의 독박육아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아빠들의 육아 참여도 늘어나는 시국인 것 같습니다.</p> <p>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라주는 게 부모들의 한결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p>	<p>어린 시절 아빠와 함께 즐겁게 놀았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p> <p>내 아이들도 자라서 아빠와 함께 했던 즐거운 시간들이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p> <p>이것저것 해보고 싶어 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고 기대됩니다.</p> <p>나 혼자만의 시간은 줄었지만 아빠가 필요한 이 시기에 아이들과 함께 더욱 소중하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p>

장려상(아차상) 3



(심현욱) 네명의 남자와 한명의 여자의 평범한 저녁식사

육아는 힘듭니다.
 힘들어도 일을 안 할 수 없듯이 힘들어도 육아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육아는 의무이고 가정을 지키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명의 남자아이를 키우는 아내와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만감이 교차합니다.
 점점 커가는 아이의 모습이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언제 크냐? 빨리 커라!

장려상(아차상) 4



(임명식) 아빠미용실

.... (중략)
 저희 부부는 엄마는 3교대 대학병원 간호사로 주로 야간근무를 하여 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낮에만 근무하는 치기공사인 제가 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그리고 올해 태어난 넷째 막내딸까지, 사랑스러운 네 명의 공주님들과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중략)
 육아는 아빠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손길이 최고이지만 아빠도 아이와 교감하는 것에 노력한다면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에 바탕이 되어 건강하고 훌륭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꼭 엄마 혼자 돌보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장려상(아차상) 5



(김유근) 배꼽에 집중





태어난 지 5일된 아이와 집에 왔습니다.
 탯줄이 예쁘게 떨어지길 바라며 오늘도 깨끗하게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함께하는 육아를 배우는 첫째 아이. 그것이 당연할 줄 알고 커갑니다.
 돌봄권리, 맞돌봄 모두 당연한 것이라 알고 커가는 다음 세대들은 지금의 아빠가 만드는 것입니다.

장려상(아차상) 6



(김경일) 항상 널 비춰줄게!

잠든 아기의 손발톱을 잘라주며, 아기가 잠든 이후에도 계속되는 아빠의 끝없는 보살핌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둠속에서도 항상 우리 아기에게 밝은 빛이 비춰지길 바라는 아빠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중략)
 엄마, 아빠 모두가 함께 자녀를 돌보며 성장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은 아빠에게는 자녀 돌봄 기회의 확대이기도 하지만, 아빠와 아이, 그리고 가족 모두의 행복을 향상시켜가는, 가족 간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장려상(아차상) 7	장려상(아차상) 8
	
<p align="center">(오종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침</p>	<p align="center">(서영곤) 엄마는 열일중, 우리는 청소중♥</p>
<p>이른 아침부터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자 목마를 태우고 밥을 먹여 달라는 아이~ 어깨는 점점 무거워졌지만,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절로 웃음이 납니다. 이런 게 행복 아닐까요.</p> <p>아빠의 돌봄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p>	<p>저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내와 휴일이 달라 토요일은 항상 아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p> <p>청소는 물론이고 아이가 일어났을 때 기저귀 갈기, 아침먹이기, 점심먹이기, 저녁먹이기, 목욕시키기 등등....</p> <p>평일 내내 일하며 지친 몸이지만 아들과 보내는 이 시간들은 다시는 돌아 올수 없는 시간임을 알기에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깁니다. 사랑한다, 아들이♥</p>
장려상(아차상) 9	장려상(아차상) 10
	
<p align="center">(방기필) 아빠와 함께하는 즐거운 목욕시간</p>	<p align="center">(박정환) 아빠의 독서 열정</p>
<p>“아빠~ 욕조에 물 받아 주세요~” 우리 세 자매는 아빠와 하는 목욕이 더 좋은가 봅니다. 흔히 직장 동료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눌 때면 “회사 나오는 게 더 편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육아가 힘들다는 뜻이겠지요~ 맞벌이 부부는 갈수록 늘어만 가고... 이제 육아는 어느 한명이 전담하는 때는 지났습니다. 어느 때 보다 아빠와의 함께 육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p>	<p>에너지의 소중함을 기리기 위한 지구의 날 소등 행사 전, 사랑하는 아들에게 책을 읽어주다 중간에 불이 꺼질 것을 대비해서 작업용 헤드 랜턴을 찾아 끼고 독서를 계속하는 열정 가득한 육아 사진입니다.</p> <p>성평등한 육아와 가사 문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일상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p>

- 공모 주제** : 자녀를 돌보며 일상의 육아를 함께 하는 아빠의 모습
- 참가 자격** : 육아기 자녀를 둔 아빠
- 공모 분야** : 사진과 스토리(같이 제출)
 - (사 진) 일상생활 속 자녀를 돌보는 아빠의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사진
 - (스토리) 아빠의 돌봄권리 보장과 맞돌봄에 대한 참가자의 생각(100자 내외)
- 공모 기간** : 2021. 9. 1.(수) ~ 10. 15.(금)
- 응모 방법** : 사진 및 스토리 일괄 접수
 - ① 공모전 전용 블로그(blog.naver.com/daddy_contest)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② 신청서 및 사진을 이메일(daddy_contest@naver.com)로 일괄 접수
 - ※ 응모작품은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아빠 육아 생활 사진전」(10월 중 개최)에 전시 예정
- 심사 기준** : 주제 적합성(40), 창의성(30), 완성도(30)
- 시상 내역**

구 분	규모	상금	부상	공통
으뜸상	1명	300만 원	한-스웨덴 항공권(2년 유효)	도드람 한돈 선물 세트
버금상	2명	각 200만 원	스웨덴 기념품 패키지	
아차상	10명	각 30만 원	스웨덴 기념품 패키지	

- 공동 주최** : 여성가족부, 주한스웨덴대사관
 - ※ 후원 : 도드람한돈
- 시상식** : 한·스웨덴 양해각서 갱신 체결식 직후(12. 2.)
 - ※ 1등 으뜸상(1명), 2등 버금상(2명) 시상